

## 제40차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 메시지

오늘 제40회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연례 합동총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일본측 위원 여러분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양국 협력위원회는 그동안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의 우호 협력과 교류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일본을 방문해서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사업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본 대중문화의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졌고, 2005년을 목표로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정부간 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우정의 해' 사업도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국민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두 나라는 양자 차원을 넘어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

는 데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2차 6자회담에서 보듯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한·일 양국의 지도자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21세기 동북아의 평화·번영과 한·일 협력'에 관해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들을 적극 토의하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양국 협력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